

스스로 망상에 덮여 진리 놓치네

여래께서 세간에 출현하신 것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이다.

여래께서는 늘 여여해서 오고 가는 바가 없다. 여래께서 세간에 집짓 출현하셨다는 것은 출현한 바 없이 출현한 것이다. 삼계라는 것도 알고 보면 본래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을 또 부수다는 것도 방편설이다. 중생들은 삼계가 있는 것으로 속아서 고태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방편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삼계 역시 없다.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없다면 삼계가 없다고 해서, 마음을 없애려고 한다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없애려는 마음이 다시 티끌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작은 티끌 하나를 100 조각으로 부수어 그 중 99개는 없애고 하나만 남았더라도, 대승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100개가 모두 없어야만, 비로소 대승으로는 원초하게 벗어난 것이다."

조개고, 조개고, 또 조개는 그런 어리석음은 다 허망한 것이다. 본래 조개될 것도 없는 것이 사실에 믿음을 내고, 그것을 체험하여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두를 들 때도 조개서는 안 되고, 의심이 의정을 통해 의단으로 몽치도록 지어나가야 한다. 대승의 공부는 번뇌를 모두 제거해서 보리를 얻는 게 아니라, 번뇌가 바로 보리라는 사실을 증득하는 것이다. '색즉시공' 이치, 색을 다 없애서 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100 등분이 완벽하게 없어졌다는 것은 티끌 번뇌를 다 제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체득했다는 말이다. 진리는 본래부터 눈앞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만, 스스로 망상에 덮여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자성을 요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삼계가 유심(唯心)'으로 삼계가 다 마음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인연들이 이런 저런 천차만별을 그림 그리듯이 펼쳐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 근본원인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 마음을 밝히는데 집중된다. 결국 돈오 견성을 체험해야 황벽스님의 이런 가르침이 소화되지, 그렇지 않다면 다만 말이나 배우는 영부새나 흙덩이를 쫓는 한나라 개에 지나지 않게 되어 마음 한켠에 항상 답답함이 남게 된다.

황벽스님은 초지일관 무위법을 가르쳤지, 유위법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다. 나아가 무위법에도 머물지 말라고 하셨다. 상(相)을 여원 무위법을 소화해야지만, 나아가 무상(無相)마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9)



범이사 주지

마음을 없애려 한다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없애려는 마음이 다시
티끌이 되기 때문이다.

진리는 본래부터
눈앞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만
스스로 망상에 덮여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 마음 하나를
밝히는데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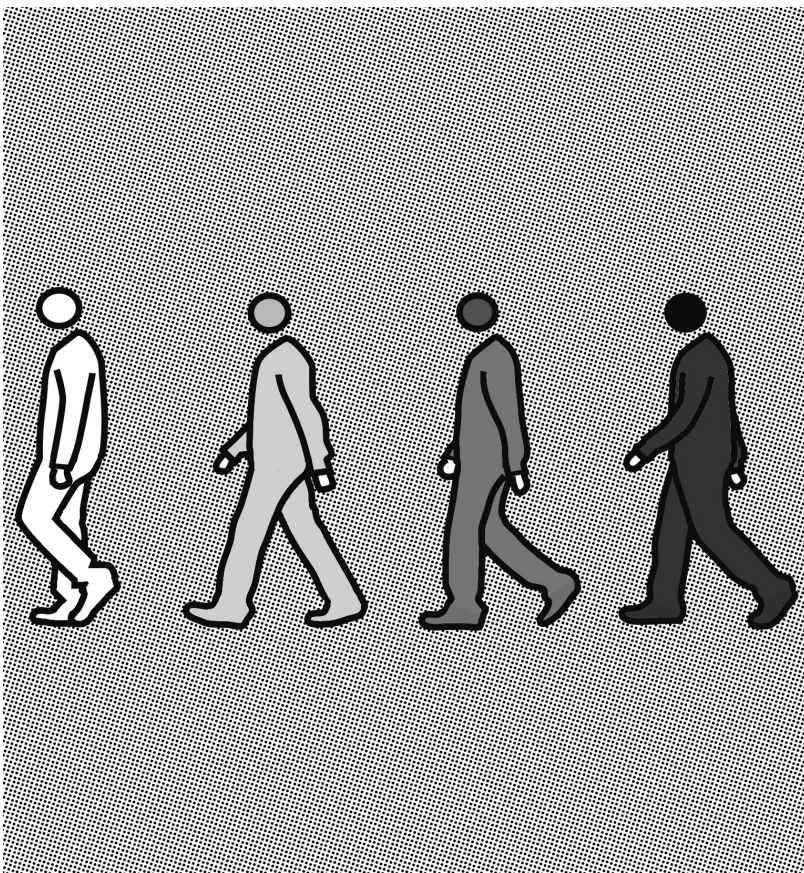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자도 넘어서는 돈오법을 터득하여 상이니 무상이니 하는 일체의 견해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다. 통찰지가 있는 사람은 짧은 순간의 인연이지만 이런 대목에서 소름끼치는 모습으로 자기를 탁 비취 볼 수 있어야 한다. 순간적으로 척랄함이 착 서면서, 그동안 정진한 것과 딱 계합되는 기연을 맞이하는 것이다. 우리는 빠저리는 정진을 통해서 이런 귀한 불법의 가치를 가납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못 알아들었다고 뒤돌아서 편하고 쉬운 수행만 찾다니면 불조의 혜명도 끊어지고 천하의 불법이 다만 값싼 싸구려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고, 더 이상 방편의 말에는 꺾달리지 않으며, 답답하게 마음을 수용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여유롭고 의연하게 정진해나가는 공부인의 모습이 귀한 시절이다.

16. 상당설법

황벽스님께서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부처다.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공물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동일한 심체(心體)를 지녔다.

지금까지 배후 재상이 묻고 황벽스님이 대답하였는데, 여기서는 황벽스님께서 상당법문하신 것을 배후가 기록하고 있다.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말에는 가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 뜻을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면 공부인이 소화하기에 제일 곱끄러운 것이 이 말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이 금과옥조처럼 비쳐지지만, 불

법에서는 '마음이 부처다.'고 해도 방망이로 두들겨 맞는다. 불법은 법안(法眼)과 불안(佛眼)을 말하는데, 이런 높은 안목에서는 모든 자취를 싹 쓸어버리지 한 물건도 남겨두지 않는다.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데, 하물며 이런 언구 따위야 더 말할 나위가 있을까. 하지만 상당해서 설법하는 인연이라면, 또 이런 말을 들려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가장 요긴하게 일러주는 말이 이런 표현들이다. 마음이 곧 부처인데, 위·아래 없이 일체 중생이 다 개유불성(皆有佛性)하고 동일한 마음 바탕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이고, 평등법이며, 무루법이자 무위법이다. 일체가 한 마음일 뿐이다.

그러므로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오셔서 오직 일심법(一心法)만을 전하셨으니,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곧장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지만, 어리석은 중생이 그림자에 속아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 마음을 깨달으면, 곁모양에 관계없이 일체가 본래 마음자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공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선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이치가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말장난이 되기 쉬우므로, 경우 따라서는 주저 없이 쳐버리기도 한다. 이치를 볼 때는 즉시 깨달음을 등지게 되는 것이 또한 마음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연 따라 말해 주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치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단칼에 쳐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그 뜻을 잘 새겨서 이쪽저쪽의 양면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㉟



모든 왕들이 정법(正法)으로 다스린다면 그 땅은 안온하고 풍족하게 되리라.

〈금광명경〉

'정치적' 과 '정치' 의 거리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독자들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의 일이다. 입학원서에는 7지망까지 학과 이름을 써넣도록 되어 있어 있었다. 영문학과. 그 다음 2지망 이하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에게서 메일이 왔다. 매우 조심스럽게 '정치학과' 를 써놓아도 되는지,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홍길동전>에서는, "아들은 아는 데에는 그 아버지만 사람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도 아닌 것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지망 후보였던 '문화사학과' 가 당연히 2지망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정치학' 을, 2지망으로라도 선택한다는 데서 큰 부담을 느꼈음에 틀림 없었다. 평소 아버지의 생각이 정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가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脫)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여러 편 쓴 것을 아이도 알고 있었다. 양해를 구하는 아이의 메일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간단하고도 흔쾌하게 "좋다" 는 답변을 보냈다. 어쩌면 이번에는 아이가 놀랐을지도 모른다. 평소의 태도와는 달리, 너무나 쉽게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영문학과를 졸업한 아이는 지금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 사이에 있는 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정치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과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같은 차원일 수 없다. 실제 내가 비판했던 것은 '정치적인 것' 이지, '정치' 가 아니었다. 정치적인 것은 법(法)이 아니라 권력(力)을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럼, 정치는? 외면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다. 누구 말마따나 "중생의 번뇌 중 50%는 정치에서 온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교 역시 '정치적인 것' 을 미워할 뿐,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금광명경>이다.

불교의 정치사상

정치는 세속의 일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세속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치이 야기가 불교에서도 나온다. 그렇다면 불교의 정치이야기를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교 밖의

세속으로부터 들어간 것도 있다고 보아야 할까?

내 생각은 후자다. 세속적인 이야기가 들어간다. 깨달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하지만, 세속적인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시공간적 배경을 '맥락(컨텍스트)' 이라 부른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특히 세속적인 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경전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도그마나 고집에 빠지게 된다. 종교에서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다.

<금광명경>은 왕(정치지도자)이 이 경전을 읽으면서, 그 경전에서 설하는 진리(正法)으로 정치를 한다면 국내의 문제나



그림 · 박구원

국제문제나 다 해결될 수 있다 말한다. 유포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맥락은 불교가 국교도 아니고, 불교라는 종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속의 정치는 민주주의나 (세속적) 법치주의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금광명경>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도 현실의 맥락을 고려하는 재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불교의 정치사상' 이 탄생되리라.

과연, 불교는 지금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에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한계나 부족한 부분은 불교가 채워줄 때, 또한 그러한 불교의 정치사상 역시 감안되면서 정치가 행해질 때 "그 땅은 안온하고 풍족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기 전 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제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법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 오전 5시 50분 KBS 1TV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 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원머리를 걷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마 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병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긴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르신들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염수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제품에 주의하세요.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도 스님에 대중공양할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규) · 식품제조업 : 대구 북제00619호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에는 수백년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당 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든지 민간요법 효소당고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 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며, 책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기존 출간된 천지운명 책 한권을 더 드립니다.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삼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운사 무령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 (예금주 : 장지업)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외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